

# 이산가족 상봉 90세 이상 50% 배정

한적, 8·15 상봉행사 돌입  
1차 후보 500명 컴퓨터 추첨  
부부·부자·부모 등 가족치  
전화 통화 후 250명 선정



25일 서울 중구 대한적십자사 본사에서 박경서 한적 회장(오른쪽 두번째)이 이산가족 상봉 예비후보자를 추첨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적십자사(한적)는 25일 이산가족 상봉 후보자 선정을 위한 컴퓨터 추첨을 진행하며 8·15 계기 상봉행사 준비 절차에 들어갔다.

한적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시 중구 소파로 한적 본사에서 윤희수 한적 사무총장 주재로 인선위원회를 열고 이산가족 상봉 후보자 선정 기준을 논의했다.

인선위원회는 이복도민회 중앙연합회,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 등 이산가족 관련 단체 3곳과 정부, 학계의 대표들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는 8명의 인선위원이 참석했다.

이어 오전 11시께 박경서 한적 회장이 인선위원회에서 결정된 선정 기준에 따라 한적 본사 양리대강홀에 세팅된 컴퓨터를 이용해 추첨을 실시, 500명의 1차 후보자를 선정했다.

한적은 "이번 상봉 후보자 추첨은 이산가족 신청자 중 24일 오후 6시까지 등록된 약 5만7천 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라고 밝혔다.

1차 후보자 선정 기준과 관련, 한적은 "우선 고령자 순으로 연령대별 인원을 배정했다. 특히 90세 이상 고령자를 제20차 상봉 때와 같은 50%를 배정했다"며 "둘째로, 가족관계에 따라 부부, 부자, 부모 등 직계가족, 형제자매, 3촌 이상의 가족관계 순으로 가중치를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박경서 한적 회장은 "오늘 겨우 예비후보 500명을 무작위 추첨했다. 5만7000 명의 한을 풀기에는 무척 부족한 숫자"라며 "오늘 선정되신 분들은 축하를 드리고, 선정되지 못하신 분들은 (복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다음 기회에 꼭 한을 풀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날 컴퓨터 추첨을 직접 참관하러 온 박성은(95) 할아버지는 "이제 살면 몇 년 더 살겠느냐"라며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말했다.

평안북도 철산군 출신의 박 할아버지는 해방 이듬해인 1946년 동생을 포함한 네 식구와 함께 월남했고, 북한에는 두 명의 형과 또 다른 동생들이 있다고 전했다.

이산가족 상봉 신청을 '수도 없이' 했다 는 박 할아버지는 이번 추첨에서도 1차 후보자로 선정되지 못해 쓸쓸하게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황해북도 신계군이 고향인 이용녀(90) 할머니는 "1·4 후퇴 때 남편과 함께 남쪽으로 왔다. 당시 3살 난 딸을 남겨두고 왔다"라며 "30년 전에 사망한 남편이 생전에 술만 마시면 북에 남겨두고 온 딸이 불쌍하다고 울곤 했다"고 말했다. 이 할머니도 이날 1차 후보자로 선정되지 못했다.

한적은 향후 1차 후보자로 선정된 500명의 이산가족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당사자들의 상봉 의사와 건강상태를 확인해 2차 상봉 후보자 250명을 선정할 방침이라

고 밝혔다.

이어 다음 달 3일까지 복측과 생사확인 의뢰서를 주고받고 이에 기초해 다음 달 25일까지 생사확인 회보서를 교환한다.

남북은 생사확인 회보서에서 생존자 중 최종 상봉 대상자 100명을 선정해 8월 4일 이산가족 상봉자 최종 명단을 교환하는 것으로 상봉 준비를 마무리한다.

최종 상봉자로 선정된 이산가족들을 상봉 행사 전날인 8월 19일 방북 교육을 받은 뒤 이튿날 상봉 장소인 금강산으로 향한다.

앞서 남북은 22일 적십자회담을 열고 각각 100명씩의 이산가족이 상봉하는 행사를 8월 20~26일 금강산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연합뉴스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에 있는 오래된 건축물. (문화재청 제공)

## 목포·군산 근대역사문화공간 문화재 등록 예고

목포, 군산에 있는 근대역사문화공간이 등록문화재가 된다.

문화재청은 근대문화유산의 입체적 보존과 활용을 위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군산 근대역사문화공간', '영주 근대역사문화거리' 등 3건을 문화재로 등록 예고했다.

등록문화재는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가운데 건설·제작·형성 이후 50년이 지난 것을 대상으로 한다. 지금까지는 건축물이나 서적처럼 점(點) 단위로 등록했으나 정부가 새로운 정책 틀을 마련, 선(線)과 면(面) 단위 등록제를 도입하면서 세 곳의 근대공간이 문화재로 등록 예고됐다.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은 목포 만호동과 유달동 일원으로 1897년 개항 이후 격자형 도로망을 따라 근대도시로 변모한 곳이다. 문화재로 등록 예고된 면적은 11만4천38㎡로, 일제 강점기와 해방 이후까지를 아우르는 다양한 근대건축 유

산이 자리한다. 조선시대 목포의 시작을 알리는 '목포진지'를 비롯 '구 목포 일본영사관', '구 동양척식주식회사 목포지점', '구 목포공립심상소학교' 등 문화유산으로서의 보존·활용 가치가 높다.

또한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에 있는 옛 복전농업주식회사 사택, 옛 목포화신연쇄점, 옛 동아부인상회 목포지점, 옛 목포부립병원 기숙 등 건축사와 생활사 측면에서 가치가 뛰어난 건물 16건은 별도로 문화재 등록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군산 근대역사문화공간은 장미동 일원 15만2천476㎡로, 1899년 대한제국 개항 이후 초기 군산항의 모습을 서서히 일제 강점기 경제수탈의 아픈 역사를 살피볼 수 있는 곳이다. 뜬다리 부두(부잔교)를 비롯해 호안시설(석축 구조물), 철도, 호남제분주식회사 창고, 경기화학약품상사 저장탱크 등 5개 핵심 시설이 포함된다. /박성진 기자 skypark@kwangju.co.kr

## 日 '군함도' 강제노역 유네스코 결정에 반영

24일(현지시간) 바레인에서 개막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채택된 대(對) 일본 결정문에 3년 전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군함도' 등 일본 산업시설에서 이뤄진 조선인 등의 강제노역 사실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27일께 채택될 것으로 보이는 결정문의 전문(前文)과 결정문 본문의 각주에 강제노역 관련 내용이 반영될 예정이다.

결정문 초안에 따르면 '세계유산센터,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와 국제문화재보존복구연구소(ICROM)의 분석 및 결론'이라는 제하의 결정문 전문에 "(일본 정부는 세계유산으로 지

정된 일본 산업시설 중) 몇몇 시설에서 제2차 세계대전 중인 1940년대 많은 한국인과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자신들의 의사에 반해 끌려와 가혹한 환경에서 일하기를 강요받았다(forced to work)는 것을 이해하게 하는 조치들을 취할 준비가 돼 있다"는 문구가 들어갔다.

이는 2015년 7월 독일 본에서 열린 세계유산위원회 회의때 사토 구니(佐藤地) 당시 주유네스코 일본 대사가 낭독한 자국 정부 성명을 인용한 것이다.

또 결정문 본문의 각주에는 강제 노역 관련 문구를 포함한 일본 정부의 2015년 당시 성명 전문이 웹상에서 클릭하면 뜨는 형태로 링크돼 있다. /연합뉴스

## 문 대통령, JP 조문 안간다... 무궁화장 추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3일 타계한 김중필 전 국무총리에 대한 조문을 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김 전 총리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하고,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을 통해 유족들에게 전달했다. 이는 5·16 군사쿠데타를 주도한 김 전 총리에 대한 문 대통령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25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하러 가는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유족들에게 예우를 갖춰서 애도를 표하라'고 지시했다"며 "조문은 이것으로 갈음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직접 조문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알아서 해석해 달라"며 "참고로 대통령은 취임 후 어떤 분께도 조문을 간 적이 없다"

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조문 여부를 놓고 막판까지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러시아 방문에서 돌아온 문 대통령은 이날 하루 일정을 비워둔 상태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임종직 비서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과 티타임에서 조문을 하지 않기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일단 운영진 국민소통수석의 애도 성명과 한병도 정무수석의 조문 등 고인에 대한 예우를 다했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가 김 전 총리에 대한 훈장을 추서한 것은 '국민통합'이라는 가치에 신경 쓴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부겸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 대표로 김 전 총리의 빈소를 조문하고 유족들에게 훈장을 전달했다. /임동욱 기자 tuim@

## 남북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 조기 복구"

남북은 25일 군 통신선 복구를 위한 대령급 통신실무접촉을 통해 "빠른 시일 내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복구하기로 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남북은 이날 오전 9시 58분부터 10시 53분까지 1시간가량 서해지구 남북 출입사무소(CIQ)에서 실무접촉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국방부는 회담 후 "쌍방은 판문점 선언의 군사 분야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군 통신선 복구가 시급하다는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선 서해지구 군 통신선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이행하기로 했다"면서 "동해지구 군 통신선은 산불로 인해 완전히 소실된 만큼, 공사에 필요한 자재·장비, 소요 기간 등을 추가 협의해 빠

른 시일 내 복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서해지구 통신선은 올해 1월 9일 우선 복원됐으나 구리선을 통한 음성통화만 가능하며, 팩스 등을 주고받으려면 광케이블을 복구해야 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서해지구 통신선과 서해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남북 2합대사령부와 북측 서해함대사령부 간 통신선은 같은 광케이블(6회선)을 사용하고 있다"며 "따라서 서해지구 광케이블을 복구하면 남북 합대사령부 간 통신선도 되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서해지구 광케이블의 고장 원인과 관련 "우리 쪽 문제는 없다"며 "북측은 자체적으로 조사해 보니 여러 원인이 있다고 했다. 북측은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것도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임야·삽니다**  
지분물건 환영. 010-6834-740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공장부지 매매" (급 매)**

■ 전남 나주시 문평면 옥당리 1397-13, 91-3  
■ 문평농공단지 6차선도로변 공장  
■ 대지 14,916.9㎡, 건물 998㎡(HBM 구조)  
■ 태양광발전소 99kW 설치(건물위)  
■ 공장, 창고, 사무실, 사위장, 화장실 시설 구비

건물일부 보증금 2천만원/월 190만원 임대중

◆ 매매가 28억 ◆  
(조정가)

**인원산업(주)**  
010-3605-0214  
062) 655-4840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팬션·전원주택지**

- 보성 문덕면 죽산리 대원사입구 택지조성된 곳 660㎡ 1억
- 장성 북이면 장성면 인근 전 2136㎡ 주택·창고적합 4700만원
- 신안군 압해도 북동리 1810㎡ 저수지열 조용한생활 적합 4300만원
- 곡성 삼거리 대지등 681㎡ 광주서 30분내 5300만원

**주택·원룸·아파트**

- 화순 동면 땅 706㎡ 2층전원주택 상가주택·아파트와 교환형 2억6천
- 월산동 소방도 땅 165㎡ 주택 179㎡ 3세대 생활용 2억3천

**투자·매도·교환**

- 무안 망운면 목서리 도로점 전 2238㎡와 현경면 해운리 대지 555㎡ 귀농생활적합 은행 9천 인수하고 2500만원
- 월산동 양면도로점 2중 주거지 873㎡ 은행4억 매도 11억5천
- 금남로 5가역 대로점 상업지 364㎡ 16억
- 쌍촌동 소방도 땅 118㎡ 2중 상가주택적합 1억3천
- 충남 보령시 원산도 664㎡ 농형 9천 취득 1억4천 매도 1300
- 영광 홍농읍 주거지역 2136㎡ 공시가 7700 매도 8700
- 화순 이양면 매정리 산 32923㎡ 금당 적합 7500만원
- 북구 망월동 주거지역 1650㎡ 전원생활 등 적합 4억3천
- 수목정(장례) 허가지 남구 덕남동 임 6645㎡ 경관좋은 2억
- 수목원 허가지 남구 덕남동 임 8232㎡ 건평 1148㎡ 허가 10억
- 함평역 건너 대로점 2중주거지 3192㎡ 다양한용도 2억6천
- 태양광적합 영광 군남 반안리 114843㎡ 매도 6억5천

**상가건물**

- 북구 우산동 대로점 땅 377㎡ 건물5층 972㎡ 은행8억 매도19억5천
- 동구 충장로5가점 수기동 대지 168㎡ 2중건물 투자에 좋은 3억8천
- 북구 용봉동 고시텔 대지 357㎡ 건평 455㎡ 830㎡ 은행5억 교환가능 9억
- 가센터적합지 농성동 대지 182㎡ 3층건물 297㎡ 현재운영중임 4억
- 농성역 부근 대지 973㎡ 건물 457평 공시지가 18억 매도 39억
- 나주시 땅 4045㎡ 건평 5893㎡ 중추해서 요양병원적합 69억
- 북동 5층건물 대지 562㎡ 건평 1637㎡ 임대생활적합 14억

☎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문앞

**사추학의 대가**  
**동광스님비법공개**

**40년 내공으로 완성한 사추학 비법을 공개합니다**

**공개강좌(무료)**

- 일시 : 2018년 7월 8일(일) 오후2시
- 장소 : 광주시 동구 대인동 한미쇼핑2층 (일월사 포교원)
- 대상 : 사추학, 역학에 관심 있는 분 누구나
- 공개강좌에 참석하셔서 새로운 사추학의 비법을 직접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포교원 (062) 524-8020**  
**원 장 010-8024-1433**